

碩士學位 請求論文

G · E · MOORE의 倫理學에 있어서
善에 대한 考察

指導教授 李 萬 成



國民倫理教育專攻

강 일 화

1989年度

G · E · MOORE의 倫理學에 있어서
善에 대한 考察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강 일 화

指導教授 李 萬 成

1989年 月 日

강일화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 審 ㉠

副 審 ㉠



副 審 ㉠

1989年 月 日

目 次

I. 序 論	1
II. Moore의 '善'分析의 基礎	4
1. Moore의 新實在論(New Realism)	4
2. Moore에 있어서 '分析'의 概念	7
3. Moore 倫理學의 主題	9
III. 自然主義的 誤謬	12
1. 自然的 屬性和 非自然的 屬性	12
2. 自然主義的 誤謬의 概念	13
3. 自然主義的 誤謬의 適用	16
IV. 善에 대한 定義의 不可能性	19
1. 善의 定義	19
2. 善과 善한것	21
3. 善의 直覺	22
V. 善과 行爲	25
1. 本來的 善과 本來的 價値	25
2. 옳음(right)과 그름(wrong)의 意味	28
3. 의무(duty)와 당위(ought)의 意味	31
VI. Moore에 대한 批判的 見解	35
VII. 結 論	40
※ 參考文獻	42
ABSTRACT	46

I. 序 論

종래의 規範 倫理學은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행위가 옳은가?' 혹은 '어떠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등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철학의 영향 아래 윤리학도 分析的인 傾向을 띠게 되었다.¹⁾

분석 윤리학자들은 규범 윤리학이 대답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또는 '~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命題에는 이미 행위의 善과 惡이 예상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실천하기에 앞서, 善과 惡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분석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의 연구 대상도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위나 성품 뿐만 아니라, 價値語(value term) 자체에 대한 연구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윤리학의 임무를 윤리적 言辭와 陳述 등에 대한 分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G·E·Moore를 선택한 이유는, 그는 가치어 분석의 문제를 윤리학의 주요 문제로 채택한 사람으로서, 그가 제기한 윤리학의 문제들이 전통적인 윤리학과 차이점을 넘어서서 현대 윤리학이 밝힐 수 있는 윤리 인식의 기준과 윤리학의 임무 등을 시사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Moore의 윤리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善'에 대한 Moore의 입장과 善과 관련된 行爲의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Moore가 윤리학에 대하여 가진 주된 관심은 문법으로 위장된 일반적인 언어를 끌어내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쉬운 말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²⁾ 그는 윤리학의 연구를 윤리의 목적이면서 최고의 가치어인 '善(good)이란 무엇인가?'라는 '善'의 定義(definition)에서부터 시작한다. Moore에 의하면, 倫理 認識은 경험적인 관찰이나 형이상학적 추론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이나 가치는 自明하

1) 김영철, 「道德哲學의 諸問題」(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3), p.12. 참조.

2) W·P·Alston and G·Nakhnikian, *Readings in Twentieth Century Philosophy*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p.244.

고 實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直覺的(intuitive)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어인 '善'은 定義가 不可能하다. Moore는 自明하여 定義할 수 없는 '善'을 어떤 형태로든 정의한다면, 자연주의적 오류(The Naturalistic Fallacy)가 된다고 말한다. 自然主義的 誤謬의 문제는 Moore가 규범 윤리학자들이 내린 '善'의 定義에 대한 비판에서 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규범 윤리학의 내부에 정립된 결론들 사이에는 概念的이든지 論理的이든지 간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

그러나 Moore도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善'을 定義할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는 개개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은 直覺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因果的인 방법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여 行爲 功利主義的인 입장을 취한다. Moore는 도덕적 판단의 정당성의 근거는 공리(utility)에 의존하지만 행위의 공리를 산출하는 가치는 하나 이상으로 본다.⁴⁾ 예를 들어 쾌락은 '本來的 善'에 포함 되지만, '本來的 善'이 쾌락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Moore의 공리주의적인 입장은 그를 도덕 평가의 내용면에서는 理想的 多元主義者 라고 부르고, 행위에 대한 도덕 규칙의 기능면에서는 행위 공리주의자라고 부른다.⁵⁾

「Principia Ethica」에서 Moore는 윤리 인식은 가능하며, 도덕적 판단의 객관적 기준의 확립을 위한 과학적인 윤리학을 세우려는 입장에 있다. 여기서, Moore의 윤리적 '善'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목적은 첫째, 가치어 분석을 통하여 윤리 인식이 가능한가. 둘째, 도덕적 판단의 객관적 기준의 확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윤리학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함에 있다. Moore의 '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글의 내용이 진행된다.

3) C·L·Stevenson, *Ethics and Language* (Yale univ. Press, New Haven, U.S.A, 1969), Preface, vii. 참조.

4) 황경식, 「社會正義의 철학적 기초」(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p. 58. 참조.

5) P·W·Taylor, 「윤리학의 기본원리」, 김영진역(서울: 서광사, 1985), pp. 94~97. 참조.

Ⅱ 장에서는 Moore 윤리학의 기저에 있는 新實在論(New Realism)과 그의 철학 방법인 分析的 概念에 대하여 알아 보고, Moore 윤리학의 일반적 특징과 주제를 살핌으로써 본 논문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전제를 뚜렷히 밝히고자 한다. Moore는 윤리학이 하나의 學問으로써 성립 가능하기 위해서는 同一 對象에 대해서 행해지는 價値語의 內容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윤리 인식의 客觀化를 위해서도 가치어의 내용은 同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Moore는 가치의 實在를 전제한다.

Ⅲ 장에서는 非自然的 屬性인 '善'을 自然的 屬性으로 정의했을 때의 오류인 自然主義的 誤謬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 본다.

Moore 윤리학의 대부분은 '善'에 대한 것이다. Moore는 '善'의 定義 문제를 윤리학의 제1의 주제로 정할 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Moore는 '善'이 지닌 단순성과 비자연적 속성(non natural property) 때문에 '善'을 定義할 수 없다고 한다.

Ⅳ 장에서는 Ⅲ 장에 이어서 '善'이 단순 개념(simple notion)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음을 보고, Moore가 제시한 '善'의 인식 방법인 直覺에 대해 살핀다. Moore는 윤리학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하면서 윤리 인식의 객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보고, 두 가지의 '善'을 제시한다. 즉 手段的인 善인 '善한것(the good)'과 目的的인 '善(good)'이 그것이다. '善한것'과 '善'의 특성 및 이들의 관계를 알아 보아 윤리 인식의 객관화에 접근한다.

Ⅴ 장에서는 주로 도덕적 판단의 객관적 기준 확립을 위한 윤리학이 가능한가에 대한 입장의 고찰로 '善'과 행위의 문제를 다룬다. Moore는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선다. 그는 '最大多數의 最大 善'을 自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행위는 '最大의 善'을 결과하도록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Moore는 행위의 문제를 실천적인 면에서 다루지 않고 옳음(right), 그름(wrong), 의무(duty), 등의 의미를 분석하는 입장에 있다.

Ⅵ 장에서는 Moore의 윤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新實在論 위에서 있는 倫理 認識의 可能性과 價値語의 實在를 전제로 한 道德的 判斷의 客觀的 確立이 가능하다는 Moore의 논의를 전개하다.

II. Moore의 ‘善’ 分析의 基礎

1. Moore의 新實在論(New Realism)

우리는 分析 哲學의 시작을 Moore에서 부터 찾는다. Moore의 철학이 이전의 철학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학적 관심이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Moore는 철학의 문제를 언어의 문제로 보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言語의 明瞭化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⁶⁾ 종전의 철학자들이 세계를 철학적 反省의 원천으로 삼았다면, Moore는 이들 철학자들이 세계와 과학에 대해 얘기했던 것들을 分析, 記述하는 것을 철학의 근본 문제로 삼는다.⁷⁾ 이처럼 Moore는 다른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에 철학적 관심이 있었음을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세계와 또한 과학이 나에게 어떤 철학적 문제를 시사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 철학적 문제를 시사하는 것은 다른 철학자들이 세계나 또는 과학에 대하여 말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사된 문제들에 대하여 나는 매우 강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문제들을 주로 두 종류의 문제들 즉 첫째는 어떤 특정한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진실로 명백히 하고자 하는 문제이고 또한 두번째는 그 철학자가 의미하는 것이 참이었다 또는 거짓이었다고 생각할 어떤 진실로 만족스런 이유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문제였다.”⁸⁾

G. J. Warnock 역시 Moore가 철학적인 관심을 명제들의 분석에 두게 된 것은 그의

- 6) 엄정식, “英國의 實在論과 觀念論의 克服 : G·E·Moore와 B·Russell을 中心으로”, 철학연구회, 「哲學研究」, 제18집 (서울: 삼일당, 1983), p. 109. 참조.
- 7) 장현오, “G·E·Moore의 哲學的 方向과 Sense Data論”, 「玄谷 文貞復 教授 華甲 記念論文集」(대구: 이문출판사, 1984), p. 321.
- 8) B·R·Gross, *Analytic Philosophy: An Historical Introduction* (New York: Pegasus, 1970), p. 11.

특성과 동기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⁹⁾ 그러나 Moore도 초기에는 영국 觀念論의 신봉자였다.

19세기 후반 부터 20세기 초엽까지 영국의 철학은 주로 F. H. Bradley의 사상인 관념론이 지배적이었다. Bradley에 의하면 우주는 하나의 統合的 全體이고 그 속의 사물들은 有機的으로 관계지워져 있다고 한다. Bradley는 사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들을 分析한다는 것은 곧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고 말한다.¹⁰⁾ Bradley의 주장은 마치 우리의 몸이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몸에서 팔과 다리 등을 떼어내는 것은 곧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팔과 다리 역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Moore는 Bradley의 이러한 이론에 반대한다. 그는 우주 내에 개별적인 사물들이 實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물들을 지칭하는 언어들 존재하고 있음은 곧 그 사물들이 실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Moore가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全實在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위해서 언어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사물들 및 가치어와 같은 관념적인 대상들이 實在마저도 인정하는 新實在論에서 비롯된다.¹¹⁾

Moore는 新實在論의 배경을 J·Lock, D·Hume 및 J·S·Mill에서 구했고, F·Brantano와 A·Meinong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Meinong은 Moore의 신실재론의 정립에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¹²⁾ Moore의 신실재론의 초기 이론은 Meinong의 이론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Meinong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9세기 독일의 Meinong은 언어와 논리의 구조로부터 세계의 참 모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철학적 입장을 보여준 사람이다. Meinong에 의하면 우리가 문장으로 어떤 대상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은, 비록 그 대상이 우리의 경험의 세계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은 어떻게든 있다 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9) G·J·Warnock, *English Philosophy Since 1900* (London : oxford univ. press, 1958), Reprinted, 1963, pp. 12-13. 참조.

10) B·R·Gross, 전제서, p. 11.

11) 장현오, 전제논문, p. 291. 참조.

12) C·A·Van·Peurson, 「現象學과 分析哲學」, 손봉호 역(서울 : 탐출판사, 1983), p. 16. 참조.

‘황금의 산’ ‘등근 사각형’ 등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모두가 안다. 그런데 Meinong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낱말들은 그것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포함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때, 어떤 낱말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낱말이 지칭하는 대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Meinong은 ‘황금의 산’, ‘등근 사각형’ 등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고 有(being)를 가진 사물들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물들을 理念的 對象이라고 부른다.¹³⁾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의 산’에 관하여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주어로 하는 참된 명제를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들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황금의 산’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가능적 존재의 세계에서 可能的인 存在일 뿐이다.

Moore가 받아들인 Meinong의 주장은 의식이란 단순히 무의식에 반대되는 개념만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작용이며, 이러한 ‘~에 관함’이야말로 意識의 本質的인 特性이라는 것이다. 모든 정신상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물질 상태와도 구별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Moore의 新實在論의 핵심은 이와 같은 Meinong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경험의 구조를 분석해낸 것이다. 다음은 Moore가 신실재론에 기초하여 Bradley가 말하는 ‘시간은 非實在的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살펴봄으로써 Moore의 신실재론의 입장을 알아 보자.

Moore는 경험의 작용과 그 대상은 논리적 형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의식의 작용과 그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Moore에 의하면 시간은 實在하면서 사유의 대상이며 非實際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유의 대상에는 키메라¹⁴⁾와 같은 정신적인 것도 있고 연필과 같은 물질적인 대상도 있을 수 있다. Moore는 이처럼 우리의 의식작용과는 관계없이 의식의 대상들이 객관적으로 實在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Moore는 Bradley의 ‘시간은 非實在的이다’라는 주장은 Bradley가 의식작용과 그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Moore는 관념론자들이 의식의 대상까지도 정신적인 것으로 믿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13) B·R·Gross, 전제서, p.69. 참조.

14) G·E·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Univ. Press, 1903), Reprinted, 1980, p. 7. 참조.

Moore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으로 부터 독립된 객관적 세계의 實在을 승인하고, 그러한 實在을 감각적으로 주어진 諸事實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新實在論의 입장을 Moore는 감각자료(Sense Data)로 설명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취급하지 않겠다. 감각자료란, 내가 토마토를 본다고 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토마토의 색깔은 조명이나 환각으로 의심할 수 있어도 토마토를 보고 있다는 시각 경험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를 Moore는 감각자료라고 한다.¹⁵⁾

Moore는 新實在論을 가치에 적용시킨다. 그는 '善'과 '惡'이 경험을 초월한 것이 라면, 그것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감정, 의지, 그 밖의 어떠한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도 주어진 대상 속에 깃들인 '善'과 '惡'의 가치를 좌우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Moore는 '善'과 '惡'을 경험 안에 생멸하는 사건이 아니라 초경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Moore가 신실재론의 입장에 서서 가치의 객관성을 확립하려 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¹⁶⁾

觀念論에 대한 반박이나 新實在論의 정립도 결과적으로는 Moore의 언어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음은 Moore의 철학 방법인 분석에 대하여 알아 보자.

2. Moore에 있어서 '分析'의 概念

Moore는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유들을 분명하게 하고 그 오류에서 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Moore가 초기의 분석에서 보여준 관심은 철학적인 문제들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분명한 해답을 얻으려는 데에 있었다. Moore는 사실에 관한 참된 지식은 신념에서가 아니라, 참된 방법에 의해서 획득되어야 한다고 보고,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⁷⁾

15) J·O·Urmson, 「분석철학 : 양차세계 대전사이의 발전과정」, 이한구역(서울 : 종로서적, 1986.), p.217. 참조.

16) 김태길, 「倫理學」(서울 : 박영사, 1986), p.172. 참조.

17) M·White, 「20세기의 철학자들 : 언어와 분석의 시대」, 신일철역(서울 : 서광사, 1987), p.45.

Moore에 있어서의 분석은 일종의 言語 分析이다. 언어 분석이란,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그 문제에 개입되는 언어의 문제에 부딪힐 때, 언어의 불명료성 혹은 언어의 특수한 성질을 분석해 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 분석 방법을 概念 分析이라고 한다. 분석은 대체로 문제와 해답을 검사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개념은 한 종류의 사물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개념, 즉 구체적이거나 특수한 개념이 아닌 抽象 概念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념 분석은 개념의 뜻을 정확하게 하고 그 논리적 성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¹⁸⁾ 그러나 개념 분석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개념을 명료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Moore가 했던 개념 분석은 개인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 Moore는 주로 철학의 기초 용어들을 대상으로 개념 분석을 해 나간다. 基礎 用語들이란, 인간, 세계, 그리고 인간 행위에 관한 근본적이고 고도로 일반적인 신념들을 진술할 때 그리고 신념들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때 사용하는 낱말들이다.¹⁹⁾ Moore는 개념 분석의 절차에서,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얻기 전에 그 개념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부터 다룬다. 그래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인 경우에만 분석을 한다. Moore의 분석은 '형제는 부모가 같은 남자이다.'와 같은 존재론적 언어의 개념 분석이다. 이렇게 볼때, 결국 그의 분석은 定義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과 동일한 뜻을 지닌 다른 개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Moore는 자신의 분석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할 일은 그 용어가 의미한다고 여겨지는 대상 혹은 개념과만 관계가 있다. 내가 발견하려는 것은 그러한 대상 혹은 개념의 본질이며 그것만이 내가 함의를 얻으려고 갈망하는 것이다.”²⁰⁾

이처럼 Moore는 분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규범 윤리학에서는 해답만을 얻으려고 했

18) 소흥렬, “分析哲學의 方法論”, 한국칸트학회, 「哲學研究」, 제1집(서울: 형설출판사, 1964), p. 71.

19) 광강재, “分析 哲學의 方法”, 「心泉 李康五 先生 華甲記念論文集」(서울: 학문사, 1980), p. 196.

20)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6.

던 가치어들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Moore가 어떤 형태의 단어들을 그와 동일한 뜻을 지닌 다른 형태의 단어들로 대체시키려는 분석 방법에서, 한 형태의 단어들보다 다른 단어들을 선호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점은 수긍이 잘 가질 않는다.²¹⁾ Moore의 이러한 주장은 言語와 論理를 혼동하는 데서 초래하는 분석 방법이라는 비난도 있으나 이후에는 概念의 定義보다는 어떻게 분석함으로써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

3. Moore 倫理學의 主題

Moore가 「Principia Ethica」의 서문에서 “나는 과학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장래의 윤리학을 위한 서론을 쓰겠다.”²²⁾고 밝혔듯이 그는 자신의 윤리학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윤리학으로 만들려고 했다. Moore는 윤리학의 직접 목적을 실천이 아닌 지식으로 보았다.²³⁾ 그래서 Moore가 윤리학에서 다루었던 것은, 윤리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왜 행위상의 한 가지의 방식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생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들이었다.²⁴⁾ 또 한 가지 Moore가 하려고 했던 것은 모든 善한 사물에 붙어 있는 다른 특성들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Moore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 가지의 윤리학의 주제를 제시한다.

첫째, ‘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²⁵⁾ 라는 ‘善’의 定義에 관한 것이다. Moore가 ‘善’의 定義 문제를 제1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善’은 모든 윤리학이 의존하는 최고 목적으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윤리적 추론이 불합리하게 되기 쉽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이 그 자체로 善인가?’ 라는 것이다. 이 제2의 주제는 ‘어떤 사물이 그 자체로 善인가?’ 라는 것과 그 자체로 善한 사물이 그 결과로서 다른 어떤 사물

21) J·O·Urmson, 전제서, p.141. 참조.

22) G·E·Moore, *Principia Ethica*, preface. ix.

23) 상제서, p.20.

24) 상제서, p.54. 참조.

25) 상제서, p.21. 참조.

과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²⁶⁾

세째, 제3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행위를 우리는 해야 하는가.’ 혹은 ‘어떠한 종류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를 묻는다. Moore는 이러한 물음들을 ‘한 행위가 어떠한 종류의 결과들을 낳을 것인가.’로 분석하고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公利主義의 입장을 취한다.²⁷⁾ Moore가 이처럼 윤리학의 기본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윤리학의 임무를 개인적인 충고나 訓誥 따위를 주는 것, 또는 德論의 제공 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Moore는 윤리학을 사정에 따른 행위 규범에 관한 목록표를 제공하는 決疑論(casuistry)으로도 보지 않는다.²⁸⁾ Moore가 윤리학에서 하려고 한 것은 윤리적 추리의 근본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했을 뿐이고, 그 원리들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결론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Moore는 윤리학에서 ‘善’에 대한 定義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첫째, 윤리학의 목적으로서의 ‘善’은 윤리학의 원칙을 세우는 데에 선결되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²⁹⁾ 둘째, 모든 윤리적 판단이 옳음,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依據할 윤리적 명제가 ‘善’이기 때문이다.³⁰⁾ Moore 윤리학의 내용 대부분이 ‘善’에 대한 것인 만큼 ‘善’에 대한 문제를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Moore가 분석하는 ‘善’은 보통 선한 행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善한것’ 중에서 오직 좋은 행위들만 검토한다고 하면, ‘善’이 아닌 다른 것을 ‘善’이라는 성질로 잘못 생각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Moore는 윤리학에서 선한 행위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善’ 그 자체가 무엇인지 부터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善’ 그 자체를 연구함이 없이는 선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善’의 의미를 이해하고서야 비로소 행위의 옳음(right), 그름(wrong)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Moore는 윤리적 판단의 기초로 생각되는 언어들은 모두

26) 상계서, p. 27. 참조.

27) 상계서, p. 37., p. 142., p. 146. 참조.

28) 상계서, p. 4. 참조.

29) G·E·Moore, *Principia Ethica*, preface, ix., p. 5. 참조.

30) 상계서, p. 143. 참조.

'善'과 관계되어 있고, '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³¹⁾ 그러므로 Moore는 '善'의 문제를 윤리학에 있어서, 행위의 규범 이전에 原理의 問題로 본다.³²⁾

이상에서 처럼 Moore는 윤리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善'에 대한 定義의 문제로 보고, '善'이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사물에 어느 정도의 '善'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윤리학이 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善(good)과 惡(bad), 옳음(right), 그름(wrong)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것들을 분류하는 일이라고 말한다.³³⁾

이러한 Moore 윤리학의 주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Moore 윤리학의 특성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주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善'이란 말로써 표시되고 있는 사물의 성질에 관한 주장을 연구한다는 점으로 나타난다.³⁴⁾ 그리고 종래의 윤리학이 神, 存在, 意志의 自由 등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답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Moore의 윤리학은 문제의 해결에 앞서 그 문제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밝히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Moore가 윤리학만이 가지는 특수성까지 배제시키면서까지 종래의 윤리학과는 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Moore 역시 수학이나 자연 과학과는 달리 윤리학에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하고 무수한 견해차가 있음을 시사한다.³⁵⁾ Moore 윤리학의 특수성은 분석적 방법과 윤리학의 영역을 도덕 문제에만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價値에 관한 일반 이론이 될 수 있도록 넓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³⁶⁾

31) 상계서, p. 21.

32) 상계서, pp. 2-3.

33) M·White, 전계서, p. 47.

34) G·E·More, *Principia Ethica*, p. 36. 참조.

35) G·E·Moore, *Ethics* (London : Oxford Univ. Press, 1912), Printed in Japan, 1958. p. 7. 참조.

36) 김영기, "자연주의적 오류에 관한 논의", 대한철학회, 「哲學研究」, 제41집(서울 : 형설출판사, 1985), p. 145.

Ⅲ. 自然主義的 誤謬

1. 自然的 屬性과 非自然的 屬性

Moore는 ‘善’이 非自然的인 屬性이기 때문에 自然的인 屬性으로 ‘善’을 定義하면, 自然主義的 誤謬가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Moore가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을 사용하여 비판했던 규범 윤리학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Moore 윤리학의 제1의 주제인 ‘善’의 定義에 접근하고자 한다.

Moore가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善’이 비자연적 속성에 있다.³⁷⁾ 우선, Moore가 의미하는 자연적인 속성과 비자연적 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서야 우리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다. Moore는 自然的이란 뜻으로 자연 과학과 심리학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또한 시간 안에 존재했으며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모두를 自然的이란 의미로 분석한다.³⁸⁾ 예를 들어 돌멩이나 나무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물리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마음도 어제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으며, 다음 순간에도 존재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어제 어떤 생각을 했고 현재 그 생각이 존재하기를 그쳤다 해도 그 생각의 결과가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존재했었음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연적이다.³⁹⁾ Moore는 쾌락이나 욕망도 자연적이고, 진화라든지 유용성도 자연적인 성질로 본다. 뿐만아니라 노랑, 푸름이라는 색깔 및 거친 소리, 부드러운 소리, 둥근, 모남, 달고, 씹, 생명을 낳거나 의지되는 것, 느껴지는 것, 모두를 자연적인 속성에 포함시킨다. 自然的 屬性이란, 우리의 감각 자료를 조사하거나 경험을 內省해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겁은 공포나 분노라는

37) P·B·Rice, 「現代道德哲學」, 김태길역(서울: 을유문화사, 1958), p. 55.

38) G·E·Moore, *Principia Ethica*, p. 40.

39) 상계서, p. 41.

성질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 속성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적 속성은 감각이나 경험에 의해서 추적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Moore가 자연적이란 개념에서 의미하는 것은 감각적 경험에 의한 자연 과학과 심리학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속성을 지닌 것들은 담아 가질 대상이 없어도 단독적으로 시간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성질들은 자연물의 하나의 述語(predicate)라기 보다는 그 대상의 구성 부분으로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實體(substance)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가 만약에 자연적 대상물인 實體를 하나 하나 그 구성 부분을 제거 한다면, 그 대상은 마지막에 가서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⁴⁰⁾ Moore는 자연적 속성을 자연물의 구성 성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고, 生滅하는 것으로 본다.

非自然的 屬性은 자연적 속성과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Moore는 비자연적 성질을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直覺적으로 알 수 있는 自명한 성질의 것으로 본다. 그러나 Moore는 비자연적 성질에 대하여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M·Warnock은 Moore의 비자연적 성질을 비감각적인 것, '善'과 같은 윤리적 개념들, 형이상학적인 개념들로 해석한다.⁴¹⁾ Moore가 '善'을 비자연적 고유성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善'이 독특하고 단순하며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궁극적인 개념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러한 전제는 價値의 實在를 가정하는 신실재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2. 自然主義的 誤謬의 概念

Moore가 의미하는 自然主義的 誤謬는 A는 B다. A는 C다. 그러므로 B는 C다. 와 같은 論理的인 誤謬는 아니다. 그가 문제삼는 것은 '쾌락은 善이다.'라고 하여 쾌락과 '善'을 同一視했을 때에 결과하는 오류이다. 만약, '쾌락은 善한것 이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자연주의적 오류가 아니라고 Moore는 말한다. 왜냐하면, '善한것'의

40) 김기순, "善·惡 概念의 分析的 考察 : D·Hume과 G·E·Moore의 說을 中心으로", 송전대학교 철학회, 「思索」, 제3집, 1972, p. 21.

41) M·Warnock, 「현대윤리학」, 김상배 역(서울 : 서광사, 1986), p. 52.

종류는 무수히 많고 쾌락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쾌락은
좋이다.’가 과연 자연주의적 오류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Moore가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을 하나의 命題로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
고,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曖昧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은 현대 윤리학의 시작에서 그 쟁점
이 되었다. Moore가 의미했던 자연주의적 오류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해석 되어지고 있다.⁴²⁾

첫째, 定義할 수 없는 개념을 정의했을 때이다.

둘째, 비자연적인 속성을 자연적인 속성으로 정의했을 때이거나, 혹은 價値語를
非價値語로 정의했을 때이다.

셋째, 사실 판단에서 가치 판단을 추론했을 때이다.

첫번째 유형에 속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예를 Moore는 색깔에 비유하여 설명
한다. 노랑(yellow) 그 자체는 自明하여 直覺적으로 알 수 있고 定義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런데 노랑을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면 자연주의적 오류가 된다.⁴³⁾ 들
째 유형의 오류는 가치어인 ‘바람직한’을 ‘욕망하는’과 같은 서술어와 동일시 했을
때, 또는 비자연적 속성인 ‘좋’을 자연적 속성인 쾌락으로 대치했을 때의 오류이다.
그리고 Moore는 좋은 사물이나 좋은 행위에 있어서 어떤 성질이나 성질들의 결합은
항상 ‘좋’이라는 비자연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물
이나 행위를 곧 ‘좋’이라고 단정해버리는 논리적 추론 역시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본
다⁴⁴⁾ Moore는 이와 같은 예를 T·H·Green에게서 찾는다. Green은 ‘좋’하다는 것
의 일반적인 특성을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Green이 ‘좋’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 Moore는 만약 ‘좋’한 사물들이 어떤 욕망을 충족 시켜주지 않는다면,
‘좋’한 사물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특성도 없게 되며 오히려 ‘좋’하다는 성격마저 상
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Moore는 ‘좋’하다는 말을 욕망을 충족시

42) 김영기, 전제논문, pp. 148-150. 참조.

43) G·E·Moore, *Principia Ethica*, p. 14. 참조.

44) 상계서, p. 10.

킨다는 말과 동일시 했을 때는 명확한 자연주의적 오류가 된다고 말한다.⁴⁵⁾ Moore가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분석했을 때의 대부분의 유형은 이러한 둘째번에 해당 된다. 세계 유형인 事實로 부터 價値를 推論해 낼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가치와 사실은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⁴⁶⁾ 사실에 관한 판단을 아무리 분석한다 해도 그 안에서 가치나 당위의 요소가 색출될 리 없으며, 전체 속에 없던 요소를 결론 안으로 끌어들이 수도 없다. 또한 사실이 어떠하다는 지식으로 부터 어떻게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는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철학자들은 실제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善'이라고 부르기를 바라며, 이것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善'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P·W·Taylor는 Moore가 '善'을 자연적인 성질로 정의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보고, '善'이 비자연적 성질임을 밝히려고 애를 쓰지만 '善'을 定義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또한 오류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연주의적 오류가 정의할 수 없는 '善'을 定義함으로써 생긴 오류라면, Moore가 '善'은 定義가 불가능하다 라고 定義하는 것 역시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Taylor는 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는 정의주의적 오류(definist fallacy)로 그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주의적 오류란, 가치 술어가 순수하게 사실적(경험적)인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될 때 생기는 오류이기 때문이다.⁴⁹⁾⁵⁰⁾ 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에서 볼 때 그 論議의 방법론과 근거는 新實在論의 입장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상계서, p.139.

46) P·W·Taylor, 전계서, p.160. 참조.

47) 김태길, 「倫理學」, p.109.

48) A·J·Ayer, *The Twentieth Century Philosophy*, (New York : Randon House, 1982), p. 43.

49) P·W·Taylor, 전계서, p.244., p.248. 참조.

50) W·K·Frankena, "The Naturalistic Fallacy", W·Sellars and J·Hospers., eds., *Readings in Ethical Theory*,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70), pp.59-60. 참조.

3. 自然主義的 誤謬의 適用

Moore의 비판 대상이 된 自然主義 倫理說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윤리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입장에 서서 논의를 전개한다. 대부분의 자연주의적 윤리학자들은 가치의 근거를 심리학적 사실에서 구한다. 즉, 쾌락주의적 윤리학자들은 쾌락만이 유일한 '善'으로 보고,⁵¹⁾ 진화론적 윤리학자들은 생명의 증가 또는 진화를 '善'으로 본다.⁵²⁾ 그러나 Moore가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을 적용시켜 비판하려 했던 것은 비단 자연주의적 윤리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Moore는 형이상학적 윤리학자들이 초감각적인 實在로 부터 '善'을 定義하여, 자아 실현이 '善'이다. 혹은 순수 의지에 따름이 '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자연주의적 오류로 보았다. Moore가 자연주의적 오류를 적용시켜 비판했던, 쾌락주의 윤리, 진화론적 윤리, 형이상학적 윤리를 살펴보고서 Moore가 주장하는 '善'에 대한 定義의 不可能性의 논의에 접근해 보자.

快樂主義 倫理說은 快樂만이 유일한 '善'이다 라는 입장에 있다. Moore는 쾌락주의 윤리설이 '善'에 대한 정의는 유쾌한 생각과 쾌락에 대한 생각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말한다.⁵³⁾ 왜냐하면, 쾌락에 대한 생각이 있는 곳에서만 쾌락이 욕구의 대상이 되든지 혹은, 행위와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술을 마실 것이라는 유쾌한 생각이 있는 곳에서는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술마시는 것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여기서의 유쾌한 생각은 내 행위의 원인이지 동기가 아니다. 따라서 쾌락이 내 욕구의 대상인 것도 아니다. Moore는 쾌락주의자들이 '善'과 '욕망되는 것'의 동일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한 결과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⁵⁴⁾ J·Bentham은 '善'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정의한다. Moore에 의하면, Bentham은 비자연적인 성질인 '善'을 일반적 행복, 혹은 이해 관계를

51) G·E·Moore, *Principia Ethica*, p. 62.

52) 상계서, p. 47.

53) 상계서, p. 74.

54) 상계서, p. 66. 참조.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성질로 정의하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한다.⁵⁵⁾ 그러나 Moore가 쾌락주의 윤리 이론의 내용 전부에 대하여 자연주의적 오류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 Moore는 쾌락만이 목적으로서 '善'내지 쾌락 자체가 '善'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만 자연주의적 오류를 적용한다.⁵⁶⁾

다음은 進化論的 倫理說이 '善'의 定義에 대한 Moore의 비판을 보기로 하자. 진화론적 윤리설의 준칙은 '자연에 따르는 생활을 하라.'이다⁵⁷⁾ 진화론적 윤리설은 그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善'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자연은 정상적인 것,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적 윤리에서는 '善'을 자연으로 대치시켜 定義했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오류가 된다.⁵⁸⁾

다음은 形而上學的 倫理說에서 자연주의적 오류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형이상학적 윤리설은 완전하게 '善'한 것이 존재는 하지만 自然界에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며, 超感覺的인 實在에 의하여 보유되는 것으로 본다.⁵⁹⁾ Moore에 따르면, Kant는 '이것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것은 명령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Moore는 Kant의 오류를 명령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善'이 될 수 없다 라고 여기는 Kant의 假定에 있다고 지적한다. Moore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實在的 초감각적인 권위에 의하여 명령된 것은 그 권위로 보아서 '이것은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이것은 좋이다.' 라는 명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초감각적인 의지나 그 이외의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동일한 논법으로 '이것은 意志된 것이기 때문에 좋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⁶⁰⁾ Moore는 형이상학적 윤리설의 오류는 '善'을 형이상학적인 언어를 빌어서 정의내리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⁶¹⁾

55) 상계서, p. 17. 참조.

56) 상계서, p. 62. 참조.

57) 상계서, p. 41.

58) 상계서, pp. 42~44. 참조.

59) 상계서, p. 113.

60) 상계서, pp. 127~128. 참조.

61) 상계서, p. 118.

Moore가 자연주의적 윤리설과 형이상학적 윤리설에 적용한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에서 볼 때, 우리는 '善'을 자연적인 것, 심리적인 것, 혹은 형이상학적인 것, 그 어느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음을 보았다.



IV. 善에 대한 定義의 不可能性

1. 善의 定義

Moore는 '善'이 비자연적 속성과 단순성 때문에 定義할 수 없다고 말한다. Ⅲ장에서 자연주의적 오류의 문제는 주로 '善'이 비자연적인 속성으로 해서 생긴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善'이 단순하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음에 대해 살펴 보자. 우선, '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는 Moore가 의미하는 定義의 概念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Moore는 '善'을 정의했던 모든 사람들은 定義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善'을 정의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⁶²⁾ Moore가 의미하는 定義란, 용어적 정의가 아니고 分析을 뜻한다. 이때의 분석은 어떤 일정한 전체를 항상 합성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서술해 나갈 때에 가지는 방식이다.⁶³⁾ 그러나 Moore가 定義를 단순히 전체에 대한 부분의 기술로만 본 것은 아니다. Moore가 의미하는 定義의 개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⁶⁴⁾

첫째, 自意的인 用語의 定義이다. 이것의 내용은 내가 말(馬)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내가 마속(馬屬)의 발굽달린 네발 짐승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정의이다.

둘째, 本來的인 用語의 定義이다. 이런 경우의 정의는, 대개의 영국인이 말(馬)이란 말을 할 때 그들은 발굽달린 네 발 짐승을 의미함을 알게 되는 정의이다.

셋째, 어떤 개념이 그 자체가 아닌 어떤 부분들로 정의될 때를 말한다. '善'에 대한 定義가 不可能한 이유는 바로 세번째의 定義의 概念에 해당된다. Moore에 의하면 定義란, 복합적인 것을 단순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善'이 단순 개념 (simple notion)⁶⁵⁾이기 때문에 定義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없다. 문제가

62) G·E·Moore, *Principia Ethica*, p. 15.

63) 상계서, p. 9.

64) 상계서, p. 8. 참조.

65) 상계서, p. 7. 참조.

된다면, 단순한 것과 복합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單純과 複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 Moore가 '善'의 정의가 불가능한 이유로 내세운 단순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

Moore가 말하는 '善'의 單純 概念이란, '善'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定義될 수 없는 개념임을 뜻한다. 정의를 가질 수 없는 개념의 뜻은 '善' 자체가 窮極的인 用語임을 의미한다. '善'이 궁극적인 용어라는 뜻은 어떤 善한것을 정의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단순 개념인 '善'에 의존하여 정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⁶⁾ '善'은 모든 善한 것의 目的이다. 그런데 '善'과 같은 단순 개념은 그 종류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 개념들은 경험해 보았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思考되고 知覺되는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개념을 상상할 수 없고 지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설명되어질 수 없으며, 어떠한 定義에 의해서도 그것의 본질을 이해시킬 수 없다.⁶⁷⁾ Moore는 다음과 같이 '善'이 단순 개념임을 설명하고 있다.

“만일 어떤이가 내게 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善은 善이요 그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또 善을 어떻게 定義하여야 되는가?라고 물으면, 나는 善은 定義할 수 없으며 그것이 내가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⁶⁸⁾

Moore는 우리가 '善'에 관하여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善' 대신에 대치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⁶⁹⁾ 이 의미는 '善'이 自明하다는 뜻과 같게 되어, Moore는 단순과 복합의 애매한 기준과 한계에서 벗어 난다. 즉 어떤 명제가 우리에게 自明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단언하는 이유이고 원인이 되는 것이다.⁷⁰⁾ 결국 '善'이 自明하다 함은, '善'이 단순하고 궁극적인 용어이며, 그 결과 분석될 수 없는 개념이다. 와 그 뜻이 같게 된다. Moore가 '善'을 정의할 수 없는 개념으로 단정하고,

66) 상계서, p. 10. 참조.

67) W·S·Sahakian,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송휘철·황경식역(서울: 박영사, 1986), p. 249.

68) G·E·Moore, *Principia Ethica*, p. 6.

69) 상계서, p. 8.

70) 상계서, pp. 143-144. 참조.

자명성으로 처리하는 것은 價値의 實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Moore 윤리학의 제1의 주제인 '善'에 대한 定義는 '善'이 비기술적(non-descriptive) 固有性으로 해서 定義가 不可能하며, '善'은 다른 진리에서 추론될 수 없는 '善' 자체의 自明性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임을 보았다.

2. 善과 善한것

Moore가 '善(good)'과 '善한것(the good)'을 구별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하고, 수단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그는 '善'을 目的으로의 善(good as end), 그리고 '善한것'을 手段的인 善(the good as means)으로 본다. 그러므로 '善'의 판단은 보편적(universal)이고, '善한것'의 판단은 일반적(general)이 된다.⁷¹⁾ 그래서 우리는 '善한것'을 통하여 '善'을 행할 수 있게 된다.⁷²⁾

Moore는 '善'을 우리의 마음에 實在하는 것, 그리고 비자연적인 속성을 지닌 형이상학적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⁷³⁾ 그 결과 '善'은 綜合的이면서도 經驗的이 아니고, 必然的이며 直覺的으로 알 수 있는 先天的 綜合 命題이다.⁷⁴⁾ '善'이 이와 같은 특성으로 해서 善은 時·空間 안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지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善' 자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것과의 관련성 속에서 發現되어야 한다. Moore는 '善'이 하나의 속성으로서 사물에 나타난 것을 '善한것'이라고 한다. Moore는 색깔의 類推를 통하여 '善'과 '善한것'을 구별해 보인다. 우리는 노랑(yellow) 그 자체를 定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노랑을 알고 있다. 그런데 노랑이라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노랑 꽃, 노랑 옷 등은 우리의 지각의 대상이면서 定義가 가능하다. 여기서 Moore는 노랑을 '善'으로 노랑옷을 '善한것'으로 대치시켜 설명한다. 그렇다면 '善'은 어떻게 사물에 나타나는가? Moore는 '善한것'이 '善'

71) 상계서, pp. 23-24. 참조.

72) R·T·Garner, B·Rosen, *Moral Philosoph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7), p. 125. 참조.

73) G·E·Moore, *Principia Ethica*, p. 101.

74) 상계서, p. 143. 참조.

을 분석함으로써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이 '좋은것'으로의 연결은 종합적이고 선천적이라고 한다.⁷⁵⁾

Moore는 이렇게 연결된 '좋은것'이 가지는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좋은것'은 모두 어떤 느낌, 특히 즐거운 느낌 및 그 밖의 다른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좋은것' 모두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因子들을 포함하는 복합된 전체이다.⁷⁶⁾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 '좋은것'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반면에 좋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행할 것인가? Moore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有機的 全體의 原理(the principle of organic whole)를 제시한다.⁷⁷⁾ 有機的이란, 상호 인과적 의존 관계, 상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부분들의 가치의 총량과는 다른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이다.⁷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의 가치를 그 부분들의 가치의 총량과 동등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부분은 전체에 대한 수단이고, 부분들이 서로 因果的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체가 부분과 부분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善의 直覺

'좋은것'은 定義가 가능하므로,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因果的 方法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은 지식에 의해 인식될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이고 단순하여 분석될 수도 없는 개념으로 전체되었기 때문에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다.⁷⁹⁾ 그러나 Moore는 '좋은'은 實在하며, 하나의 公理처럼 自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명한 '좋은'의 認識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갖는 '좋은것'을 인식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Moore는 '좋은'이 自명하기 때문에 그 인식은 直覺的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直覺이란 무엇인가. Moore는 직각의 의미를 인간에게 구비된 인식의 능력이

75) P·B·Rice, 전제서, p. 71. 참조.

76) G·E·Moore, *Principia Ethica*, pp. 153-154.

77) 유기적 전체의 원리는 제5장 참조.

78) G·E·Moore, *Principia Ethica*, p. 30., p. 36.

79) P·B·Rice, 전제서, p. 54.

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Moore는 '善'의 인식이 직각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善'의 인식을 위한 특수한 기능이 인간에게 따로 주어져 있다고 보지 않았다. 直覺은 인간의 능력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될 수 없는 것, 自明한 命題의 認識方法과 관계가 있다. Moore 자신이 "나는 보통 의미에서의 直覺主義者가 아니다."⁸⁰⁾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Moore가 직각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윤리학의 근본 원리에 관한 것 뿐이며, 개개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Moore에 있어서 직각의 의미는 첫째, 他命題로 부터 추론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 방법이다. 둘째, 증명 불가능하여 적절한 증거를 댈 수 없는 명제의 진리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⁸¹⁾ 그러므로 直覺이 등장해야 할 경우는 어떤 명제가 自明하여 사실상 그 명제의 진리성을 증명해 줄 이유들이 하나도 없을 때이다. 예를 들면, 直覺은 윤리적 개념이 비자연적인 성질 내지, 관계에 의하여 그 독특한 명령 내지 규범적인 힘을 얻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善'이 非自然的 固有성과 사물이나 행위가 '善'에 공헌하는 어떤 자연적인(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특성을 연결시키는 문제의 해결에 사용된다. Moore에 의하면 비자연적 고유성과 자연적인 것의 연결은 개념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맺어지는 것이 아닌 까닭으로 綜合的이며, 그렇다고 경험적으로 추론되는 것은 더욱 아닌 까닭으로 先天的인 것으로 본다.⁸²⁾

도덕적 판단의 객관성을 얻고자 하는 Moore의 분석적인 태도로 보았을 때, 그가 '善'의 인식을 직각적인 방법에 의존함에는 모든 사람이 '善'이란 개념을 알고 있음을 전제한다.⁸³⁾ Moore가 '善'의 인식을 직각에 호소하는 것은 '善'이 비자연적 고유성, 단순성 그리고 자명성을 지닌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善'의 인식 방법으로 제시한 직각은 전통적인 倫理法則主義者들이 윤리적 입장에서 취하는 직각과는 다르다. 법치론자들은 도덕률의 판별을 직각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도

80) G·E·Moore, *Principia Ethica*, Preface. x.

김영철, 「倫理學」(서울: 학연사, 1983), p.9. 참조.

81) G·E·Moore, *Principia Ethica*, Preface. x., p.75., pp.143~144. 참조.

82) P·B·Rice, 전제서, p.71.

83) G·E·Moore, *Principia Ethica*, p.17.

덕률은 先天的이며 自明한 것으로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因果的 고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경험도 필요없다고 본다. 그러나 Moore는 직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추구해야 할 목적은 '善'의 가치이며 옳음, 그름의 행위는 직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인과적 방법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V. 善과 行爲

1. 本來的 善과 本來的 價値

Moore 윤리학의 세 번째 주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最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이다. 이 물음에서 우리는 Moore가 인간이 꼭 실천해야 할 最善의 행위가 있는 것처럼 믿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Moore는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천적인 방향에서가 아니라 분석적인 입장에서 설명한다. Moore는 어떠한 행위가 옳으며 어떠한 행위가 의무인가 라는 문제들을 ‘最大의 善’을 산출하는 행위들과 관계시킴으로서 公利主義的 立場에 선다. 그는 옳고, 그름은 개개의 행위의 결과가 ‘最大의 善’을 결과하는 행위 공리주의(act-utilitarianism)적 입장에 있지만, 그 행위 결정의 근거는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에 둔다.⁸⁴⁾ 옳은 행위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本來的 價値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자.

Moore는 도덕적 판단의 객관적인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본래적 가치의 개념 분석을 시도했다. 價値가 本來的이란 것은, 어떤 사물이 본래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느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전적으로 그 사물의 본래적 속성에만 의존한다는 뜻이다.⁸⁵⁾ Moore는 본래적 속성(intrinsic property)을 인간의 정신적 태도와는 독립해서 實在하는 객관적 보편성의 개념으로, 또 선천적(apriori)인 필연성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래적 가치는 검증가능한

84) 상계서, p. 180.

G. E. Moore, *Ethics*, p. 139., p. 144.

85) G. E. Moore, *Philosophical Studies*, p. 260., 장현오, “道德判斷의 客觀性과 本來的 價値의 개념분석: G. E. Moore의 理論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제8집, 1982, p. 138. 재인용.

대상이 아니다. Moore는 본래적 가치를 非自然的 屬性 非派生的인 價値로 본다.⁸⁶⁾ 본래적 가치는 인간의 의식에서만 先天的인 方式으로 지각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인간은 이러한 가치 개념을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한편, 그것을 한 번 알면 영원히 그것을 잊지 않는다.⁸⁷⁾ Moore는 본래적 가치에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시킨다. 첫째, 本來的 善(intrinsic good), 둘째, 本來的 惡(intrinsic bad) 셋째, 本來的 無差別性(intrinsic indiffererent)이 그것이다.⁸⁸⁾ 이러한 Moore의 본래적 가치의 분석에서 볼 때, 本來的 善은 인간의 의식에만 나타나는 경험의 일종이며, 이것은 인간만이 체험할 수 있고 인간만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Moore의 주장처럼 본래적 가치를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필연성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본래적 가치가 있다고 올바르게 판단만 한다면 그 판단은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이다.⁸⁹⁾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 가치 판단은 객관적 도덕 판단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Moore는 보편적 판단은 본래적 가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그 행위의 결과의 본래적 가치에 의존하여 판단할 때 우리는 가치 판단의 객관성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Moore에 의하면 본래적 가치를 지닌 대상들은 무수히 존재하고 이들 대상들은 複合對象(complex object)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본래적 가치는 여러 상이한 요소들의 다양성을 포함한 복합된 전체(complex whole)이기 때문이다.⁹⁰⁾ 그런데 이와 같은 복합대상의 內에는 본래적 자연적 특성과 본래적 비자연적 특성이 함께 공존한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本來的 價値는 바로 非自然的 特性이다. 본래적 가치가 비자연적 특성이므로, 어떤 대상이 본래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동일한 대상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만큼의 본래적 가치를 필연적으로 소유한다.

86) P. W. Taylor, ed., *Problems of Moral Philosophy*. (Belmont, California :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Inc., 1969), p. 443. 참조.

87) G. E. Moore, *Philosophical Studies*, p. 259., 김종문, "G. E. Moore 本來的 價値概念에 대한 分析",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78, p. 148. 재인용.

88) G. E. Moore, *Ethics*, p. 42.

89) 김종문, "G. E. Moore 本來的 價値概念에 대한 分析", p. 150.

90)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153., p. 164.

‘本來的 善’도 본래적 가치이기 때문에 복합된 전체로 나타나며, 그것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本來的 善’은 그 자체가 바람직한 목적으로서의 가치이다. 다만, ‘本來的 善’ 역시 복합된 전체의 형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本來的 善’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本來的 惡까지도 포함하는 有機的 全體(organic whole)이다.⁹¹⁾

Moore는 보편적 가치 판단의 원리로 유기적 전체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원리는 ‘善’의 고유성을 사물이나 사태 그 자체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에 관하여 고찰할 때 하나의 유기적 전체가 가지는 ‘善’의 가치량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가치량의 합계와 다름을 말해주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美를 즐긴다는 것은 순수한 快樂과 순수한 美가 서로 분리되어 각각이 가지는 가치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큰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Moore는 말한다.⁹²⁾

Moore가 추구하는 본래적 가치는 ‘本來的 善’으로서 非快樂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Moore의 의도대로 유기적 전체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순수한 쾌락(자연적인 것)의 가치와 비쾌락적인 요소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둘째로는 이것들에 의해 구성되는 유기적 전체의 가치를 확인한 다음, 끝으로 전체의 가치가 서로 분리된 구성 요소 각각의 가치를 합산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⁹³⁾ Moore는 이와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단과 목적의 혼동을 제거하고 개개가 지닌 구별되는 성질들을 하나씩 분리시켜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Moore는 分離의 方法(The Method of Isolation)을 제시한다. 분리의 방법이란, 어떠한 사물들을 완전히 그들만 따로 격리해서 제 혼자만 존재하도록 해둔 후 그것들의 존재를 ‘善’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판별하고나서, 여러 가지의 다른 사물들과의 상대적 가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물들을 하나 하나 격리시켜 놓는다. 이렇게 격리된 존재에 어떤 비교적 가치가 첨부될 것인가를 고찰하고 그것들만 존재하는 세계를 상상해 보는 방법이다.⁹⁴⁾ Moore는 ‘本來的 善’을 경험적으로 구성될 수

91) G. E. Moore *Ethics*, p. 42.

92) 황경식, 「社會正義의 철학적 기초」(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p. 62.

93) 상계서, p. 63. 참조.

94)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187. 참조.

없고 인간의 의식에만 나타나는 비자연적, 선천적, 필연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적에 따르는 필연성의 논리가 어떤 법칙인지를 알 수는 없으며, Moore 자신 역시 본래적 가치가 어떠하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Moore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판단들을 수단에 대한 판단보다 우월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에 대한 수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선행'했다가도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⁹⁵⁾ 그리고 moore는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어떤 주장의 眞·僞를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본래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두 가지중 어느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함으로써 우리는 본래적 가치인 善(good)내지 惡(bad, 혹은 vileness)을 직접 고찰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판단은 객관성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⁹⁶⁾

2. 옳음(right)과 그름(wrong)의 意味

우리의 모든 행위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Moore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결과의 판단은 그 행위가 自意的 行爲(voluntary action)인 경우에 한해서만 옳고 그름을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한다.⁹⁷⁾ 이로써 우리는 Moore가 행위의 실천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ore가 옳음(right)과 그름(wrong)이 주장될 수 있는 행위를 절대적인 행위가 아닌 自意的 行爲로 한정하는 데에는 다음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병자가 병에 걸리는 것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 피할 수가 없어서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병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는 병자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죄는 우리가 피하고자 선택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95) 상계서, p. 166.

96) 상계서, p. 166. 참조.

97) G. E. Moore, *Ethics*, pp. 15-16., p. 19., p. 123. 참조.

※ voluntary action 이란, 결정, 강제로 부터 자유로우며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는 행동이다.

옳고 그름의 전제가 되는 자의적 행위에 대하여 알아 보자. Moore는 自意的 行爲를 내가 선택했다면 했을 행위로 분석한다.⁹⁸⁾ 내가 선택했다면 했을 행위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행위와 선택에서 제외시킬 행위가 공존했을 때 만약 내가 달리 선택한다면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뜻한다. 즉 자의적 행위는 내가 선택하고 意志된 행위이다.⁹⁹⁾ 내가 선택했다면 했을 행위인, 자의적 행위는 선택의 자유라는 문제와 관련되며 자의적 행위의 진술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로 표현된다. Moore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자의적 행위로 한정시킨 것은 곧 우리의 행위가 의지의 통제 하에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Moore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분석한다.¹⁰⁰⁾ 그러므로 ‘이 행동은 옳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현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행동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분석될 수 있다.¹⁰¹⁾

Moore는 옳음 그 자체의 固有의 價値는 實在한다고 믿는다. 그는 本來的 價値의 實在을 전제했으며, 또한 그가 도덕 규칙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어떠한 행위도 옳음이면 동시에 그름일 수 없다.”¹⁰²⁾ 라고 하는 진술에는 이미 옳음의 고유성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 自意的 行爲가 옳음과 그름이 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볼 차례가 됐다.

自意的 行爲가 옳음인 경우는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선택했을 때 자신이 행한 행위보다 더 많은 快를 야기시켜 줄 다른 행위를 행할 수 없을 때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의적 행위가 그름인 경우는 자신이 행한 행위보다 더 많은 快를 야기시켜 줄 다른 행위를 행위자가 대신 행할 수 있을 때이다. 결과적으로 옳음의 행위는 행위자의 선택의 가능성과 관계가 있으며 그 판단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快의 산출의 결과에

98) G. E. Moore, *Ethics*, p. 19.

99) 상계서, p. 10. 참조., 장현오, “G. E. Moore 倫理學의 分析의 特徵에 관한 小考”, 영남대학교, 「哲學會誌」, 제8집, 1981, p. 48. 참조.

100) G. E. Moore, *Ethics*, p. 131.

101)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25., p. 147. 참조.

102) G. E. Moore, *Ethics*, p. 138.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¹⁰³⁾

Moore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最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¹⁰⁴⁾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위가 공리성에 근거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예로 Moore는 '살인은 뉘이다.'가 옳음이 됨을 공리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¹⁰⁵⁾ 첫째, 사람들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생존을 욕망하는데 살인은 방해가 되므로 살인 행위가 일반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은 뉘이다. 둘째, 우리가 아는 모든 사회 조건하에서는 마땅히 살인은 하지 말아야 하는 상식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의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공리성에 있음으로 해서 언제나 옳은 행위는 自意的 行爲가 최대의 善을 결과했을 때를 말하고 언제나 옳음에만 속하는 보편적인 특성은 '本來的 善'이 되는 것이다. ¹⁰⁶⁾ 이 때의 옳음의 행위는 기대되는 가장 좋은 결과에 달렸거나,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 혹은 가능성이 가장 좋은 결과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가장 좋은 결과에 의존한다. ¹⁰⁷⁾ 그러나 우리는 행위의 결과가 먼 장래까지도 역시 옳은 행위인지 결코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옳음의 행위는 '最善'의 결과를 초래할 상황 중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행위 중의 하나이다. ¹⁰⁸⁾

Moore가 '善'의 분석에서와는 달리 옳음, 그름의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낸 것은 개인 행위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영국적인 공리성에 있다. Moore는 자신의 공리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우로는 옳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는 그름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가 한 행위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

103) 상계서, p. 19. 참조., 장현오, “G. E. Moore 倫理學의 分析的 特徵에 관한 小考”, p. 50. 참조.

104)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165.

105) 상계서, p. 157.

106) G. E. Moore, *Ethics*, p. 29.

107) W. S. Sahakian, 전계서, p. 251.

108) A. J. Ayer, 전계서, p. 42.

은 분명히 잘한 일 일 것이다. 왜냐하면, 制裁(sanction)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행위에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한 制裁를 완화해 주면 그 결과는 예외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위와 유사한 행위를 조장하여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유용하고 또 동시에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칙들에 부종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¹⁰⁹⁾

이처럼 Moore는 상식의 옹호자다운 일면을 보이고 있지만, 한 행위가 어떤 규칙에 일치했을 때 옳고 그렇지 아니했을 때 그름이 되는 規則 公利主義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오히려 개별적 행위가 옳음인지 그름인지는 그 행위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는 행위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있다. Moore가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옳음과 그름을 經驗의 歸納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분석 윤리학자로서의 ‘善’의 定義때와는 달리 그의 윤리설을 非快樂的 公利主義 혹은 Moore가 ‘善’을 윤리의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理想的 公利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¹¹⁰⁾

3. 의무(duty)와 당위(ought)의 意味

우리는 앞에서 自意的 行爲의 결과가 ‘最大의 善’을 창출할 때 그 행위는 옳음이고 그 반대일 때 그름이 됨을 보았다. 그리고 Moore는 행위 규칙의 옹호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옳음을 행하는 것이 의무이고 당위일까? Moore는 어떻게 의무와 당위를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윤리적 판단은 어렵고 복잡하다 또한 우리는 어떤 행동이 ‘最善’의 효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다. 그렇지만 Moore는 우리가 최대량의 ‘善’을 보장하는 방법을 세우는 데에는 확실성을 기할 수는 없다고 해도 앞으로 일어날 禍惡은 눈앞에 떨어진 ‘善’보다 더 클 수 없다는 자신을 갖자고 말한다.¹¹¹⁾ Moore는 의무 역시 어떤 다른 가능한 대안들 보다 더 많은 ‘善’을 이 우주 내에 존재하도록 야기시킬 행위여야 한다고 말한다. 즉 어떤 행위가 해로움보다 ‘善’을 더 많이 산출할 때 그 행

109)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164.

110) P. B. Rice, 전제서, p. 63.

111)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23. 참조.

위가 곧 義務가 된다. ¹¹²⁾ Moore는 ‘나는 무엇을 해야한다.’와 같은 의무의 표현을 ‘내가 문제의 그것을 하지않으면 그르다.’와 같은 의미로 분석한다. 또한 그는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우리는 마땅히 해야하는가?’라는 當爲的 물음을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종류의 결과들을 낳을 것인가?’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Moore의 의무와 당위적 행위의 분석에서 볼 때 의무와 당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因果的 一般化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의무와 당위적 행위도 더 ‘善’한 것의 원인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무와 당위가 공리성에 비추어졌을 때 善의 행위와 구별이 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Moore는 의무, 당위, 善의 행위의 구분을 행위자의 행위 선택의 가능성 여부에 의존한다. 즉 善은 행위가 행위자가 열려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한 어떤 행위가 ‘最善’의 결과를 초래했을 때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행위가 모두 그름이 되는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다. 반면에 의무와 당위의 행위는 행위자에게 선택 가능한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의무이다.’ ‘이것이 당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행위 만을 행해야지 그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모두 그름이 된다. ¹¹³⁾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당위의 주장은 善의 경우처럼 열려진 代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할 수 있음(can)’을 의미한다. Moore는 당위에 ‘자유’를 의미하는 ‘할 수 있음’의 의미를 조건적으로 내포시켜, 당위의 의미를 ‘할 수 있음’으로 분석한다. ¹¹⁴⁾ Moore는 의무의 개념을 善과 관련시켜 분석한다. 그는 善과 의무는 어떤 경우에는 ‘善’에 대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 ¹¹⁵⁾ Moore는 ‘이것은 나의 의무인가?’라고 묻는 경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행위가 대체로 가능한 ‘最善’의 결과를 낳

112) 상계서, pp. 146-147. 참조.

M. Warnock, 전계서, p. 66.

113) G. E. Moore, *Ethics*, pp. 21-22.

114) 김종문, “G. E. Moore의 Can 意味分析과 Free Will 問題”, 한국철학연구회, 『哲學研究』, 제12집, 1971, p. 7. 참조.

115)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167.

을 것인가에 관하여 그 여부를 묻는 것과 같다고 한다.¹¹⁶⁾ 그래서 Moore는 어떤 행위가 絶對的인 義務이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를 결정하는 조건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무한한 미래까지 통틀어 우리들의 행위가 영향을 줄 모든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적 행위의 因果的 知識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행위 자체의 가치 정도와 그로 인한 모든 결과들의 가치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셋째, 첫째와 둘째의 조건이 온 세계에 있는 다른 것들과 결합하여 만든 하나의 有機的 全體가 어떠한 가치로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의무인 행위 대신에 채택할 다른 행위들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의무로서 선택된 행위와 선택할 수 있었던 행위의 양자간을 비교해 보아서 선택된 행위의 총가치가 다른 행위의 총가치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¹¹⁷⁾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위가 의무인지를 因果的 知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고, 또한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도 믿을 수 없다. 윤리학은 Moore의 말처럼 우리에게 의무의 일람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Moore가 위와 같이 절대 의무의 조건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행위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의무는 다른 어떤 선택 가능한 행위보다 더 많은 '善'을 이 세계에 창출할 행위로 본다. Moore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도록 도덕적으로 강요받고 있다.'는 것은 이 행위는 온 세계에 최대량의 '善'을 결과할 것이라는 가능성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본다.¹¹⁸⁾ Moore는 옳음의 행위를 인과적인 결과와 관계시키는 것처럼 의무 역시 행위의 인과적 판단에 의해서 '本來的 善'을 통하여 定義한다.¹¹⁹⁾

위와 같이 의무, 당위, 옳음의 행위가 인과적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다면, 윤리 법칙은 자연의 과학 법칙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Moore는 이런 의문을 윤리 법칙이 갖는 개연성의 특징을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서 해결하려 한

116) 상계서, p. 169.

117) 상계서, p. 149.

118) 상계서, pp. 147-148.

119) 송석구, "G. E. Moore의 옳음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p. 59.

다. Moore에 의하면, 윤리 법칙은 과학 법칙이 가지는 성격과는 다르다고 한다. 과학적 예언은 비록 개연적이기는 하나 그 蓋然性이 대단히 위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윤리학에는 예언의 기반이 의존하는 정확한 假設的 知識이 비교적 빠진 까닭에 그 개연성이 위대해지거나 價値있게 되기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ore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개연성을 내포한 보통 정도의 도덕 규칙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우리는 양은 덜하지만 개인이 강렬한 채택 의욕을 가진 '善' 즉 목적하는 데에 적당한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는 '善'을 채택한다. 둘째, 우리가 '善'을 행할 때는 자신에게서 인간적이든지 거리상으로부터든지 가까운데서 부터 행한다. 셋째, 우리는 '善'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善한 행위를 실천한다. 즉 시간상 짧은 기간내에 '善'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행위하게 된다는 것이다.¹²⁰⁾ Moore는 도덕 규칙들이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목적인 '善'을 위한 수단일 뿐임을 말하고 있다.

Moore는 '善'과 행위의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어떤 특수한 대답이 옳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어떠한 것이 이 문제의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또한 이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난관을 필연적으로 당면해야 하는가를 말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120) G. E. Moore, *Principia Ethica*, pp. 166-167.

VI. Moore에 대한 批判的 見解

'善'이란 무엇인가? 라는 '善'에 대한 定義의 중요성에서 부터 시작되는 Moore 윤리학이 가지는 意義는 윤리학의 과제를 價値語의 定義로 설정하여 현대 분석 윤리학의 嚆矢를 이루었다는 데에 있다. 윤리학이 평가적 발언에 있어서 특히 그 의미를 좌우하는 것은 흔히 그 발언의 賓辭(predicate)노릇을 하는 가치어(value term)이다. 이렇게 볼 때 가치어의 정의를 윤리학의 주임무로 하는 Moore의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메타 윤리학으로의 轉機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¹²¹⁾ 그리고 Moore의 自然主義的 誤謬의 論議에서, 우리는 종래의 윤리학에서 볼 수 없었던 Moore의 언어에 대한 높은 분별력을 볼 수 있다. 언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Moore가 보여준 치밀한 分析은 지금도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자연주의적 오류의 개념은 현대 윤리학으로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아니라 Moore가 자연주의적 오류를 지적한 사실로 인해 우리의 주의를 倫理的 用語에 집중시킨 일은 윤리 사상에 중요한 기여이다.¹²²⁾ Moore가 분석적 방법을 도입하여 윤리학에서 시도한 가치어의 분석은 윤리학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화 하는데 이바지 했다.

윤리학사에서 이처럼 혁신적인 연구 방법과 문제의 제기를 할 수 있었던 Moore의 입장을 W·P·Alst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Moore는 전문 철학자적인 영향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Moore로 하여금 윤리학에 참신성을 더할 수 있었다 라고 전제한다.

둘째, B·Russell이나 J·Dewey와는 달리 Moore는 정치 사회적 영향력 하에 머

121) 김태길, 전제서, p. 169.

김영철, 「倫理學」, p. 246. 참조.

122) Michael. Corrado, 「분석철학: 그 전통과 쟁점들」, 광강제 역(서울: 서광사, 1986), p. 152.

물지 않은 채 저술 활동에 임할 수 있었으므로 해서 보다 더 진실되고 이상적일 수 있었다고 본다.

세째, Moore의 철학적 태도가 그 당시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참신하고, 지식을 위한 지식의 추구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¹²³⁾ C·D·Broad 역시 ‘문제들을 분석하고 誤謬와 曖昧性들을 탐지하여 들추어 내며, 가능한 대안들을 공식화하고 해결해 내는 순수한 힘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Moore이다.’¹²⁴⁾ 라고 Moore의 탁월한 철학적 분석력과 독창성을 단적으로 말한다. 이 밖에도 Moore를 가리켜, ‘분석적 특징을 잘 끄집어 내고 세밀한 논의를 한 20세기 최상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철학적 분석의 역사와 탐구들이 Moore로 부터 비롯됐다고 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한다.¹²⁵⁾ Moore의 윤리적 개념의 분석은 지금도 많이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Moore가 윤리학사에 끼친 독창성과 분별력에도 불구하고 몇가지의 문제는 그 批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Moore는 윤리학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리학이 學問的 가능 근거를 고찰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윤리학의 명제가 그것을 발언하는 사람의 情緒와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Moore의 윤리학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외면했음을 볼 수 있다. Moore가 윤리학의 학문성을 주장하고 倫理的 命題의 객관적 타당성 및 보편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송두리째 제거해 가면서까지 윤리학의 학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의의가 있겠는가? 라는 反問을 없앨 수가 없다. 김기순은 Moore가 ‘善’이 客觀的 實在를 주장함에도 일면의 진리가 있으나 ‘善’이 행위와 정서 반응의 관계에서 형성된 개념이라는 주장도 타당

123) W. P. Alston and George·Nakhnikian, 전제서, p. 12.

124) G. E. Moore, *Philosophical Papers*, (London : George Allen, Unwin Ltd, 1959), Reprinted(New York : Humanities Press, Inc., 1977), p. 12.

이 책의 머리글에서 Moore를 소개하는 C. D. Broad의 글의 내용의 일부임.

125) 장현오, “G. E. Moore의 哲學의 方向과 Sense Data 論”, 「玄谷 文貞復 教授 華甲 記念論文集」(대구 : 이문출판사, 1984), p. 286.

하다고 말한다.¹²⁶⁾ 왜냐하면 윤리의 문제가 인간의 정서와 행위를 완전히 도외시 해서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善’을 사물이 특성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의욕적인 관계에서만 성립된다고 이해하면, ‘善’을 관계 개념으로서 定義할 수 있다. 그러면 ‘善’은 定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Moore는 자신의 윤리학은 행위에 관한 諸主張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Moore는 ‘善’을 道德的인 의미로서의 ‘善’인지 沒道德的(non moral)인 의미에서의 ‘善’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혼동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윤리, 도덕은 개체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고 타인과의 인간 관계에서 성립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사물의 ‘善’ 또는 ‘惡’의 문제가 윤리 도덕에 있어서 불가결한 하나의 조건은 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행위를 전제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보아 진다. 또한 Moore는 ‘善’을 사물의 특성으로 국한시키면서도 사태나 사태들의 집합이 어떤 제도의 문맥안에서만 성립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다음은 ‘善’에 대한 定義의 不可能性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Moore는 ‘善’이 단순하여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단순’과 ‘복합’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부분들을 나누는 것인지에 대한 Moore의 설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과연 단순성은 정의할 수 없는 것인가?란 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단순하다는 것도 세포나 분자 혹은 원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때는 ‘다리’나 ‘심장’은 단순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현 역시 자신의 글에서, 단순하다는 것도 그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복합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⁷⁾

둘째, Moore는 存在를 當爲로 전환하면 자연주의적 오류가 되므로 ‘善’은 정의할 수 없고, 實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Moore의 ‘善’에 대한 定義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어의 문맥안에서 ‘善’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분석함으로써

126) 김기순, 전제논문, p. 13.

127) Lee Myung-hyun, "Criticism of Moore's Notion of Indefinable Good", 한국철학회, 『哲學』, 제10집, 1976, pp. 133-142. 참조.

서 가치어인 '善'을 정의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¹²⁸⁾ '善'은 윤리적 입장에 따라 定義가 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째, Moore는 '善'이 비자연적 속성으로 인하여, '善'은 定義될 수 없고 直覺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노랑이라는 색깔의 유추를 통하여 '善'을 설명한다. 그러나 노랑은 직각적으로 알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관계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 Moore에 의하면 直覺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고 말한다. 과연 우리는 '善'이 自明한 것이기 때문에 時·空을 초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만인들이 '善'을 直覺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

네째, Moore는 '善'이 비자연적 속성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善'에 대한 定義가 불가능한 요인인 비자연적 고유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것은 Moore 자신이 論點 先取의 誤謬(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를 저지른 셈이 되고 말았다.¹²⁹⁾

Moore는 자신의 윤리학을 과학적, 객관적인 윤리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러한 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 보자. Moore는 「Principia Ethica」의 서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자신이 윤리학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윤리학으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善'에 대한 定義 및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 直覺에 호소함으로써 과학적이라고 찬성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Moore가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얻기 위해서 내세운, '여하한 행위도 결코 옳음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름일 수 없다.'는 명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김씨가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도덕 법칙에 따라 한 달의 봉급 전부를 이씨에게 지불하면, 가족을 마땅히 부양해야 한다는 또 다른 도덕 규칙을 지킬 수 없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에 김씨의 행위는 전자의 도덕 규칙을 지키자면 후자의 도덕 규칙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 만일 그가 전자를 지켰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옳음이지만 후자를 지키

128) 김혜숙. "옳음의 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p. 64. 참조.

129) 김영철, 「倫理學」, p. 253.

지 못했음으로 해서 그의 행위는 그림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행위가 옳음이면서 동시에 그림일 수 있다는 논법이 참으로 성립될 수 있다.¹³⁰⁾ Moore는 윤리학이 객관적, 체계적인 확립을 위해서 '옳'의 實在를 가정한다 그렇지만 '옳'의 認識을 직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 Moore의 윤리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음은 윤리적 행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기로 하자. Moore는 行爲 公利主義者에 가깝기 때문에 그의 윤리학은 결과의 윤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위가 '最大多數의 最大善'을 결과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神과 같이 全知全能해야 한다. 인간의 지혜로는 순간순간에 판단한 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혹은 불특정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욱 알 수 없는 일이다.



130) Sindy · Zink, *The Concepts of Ethics* (London : Macmillan, 1962), pp. 170-171., 김종문, "Moore의 Moral Rules 분석에 대한-考" 『虛有河岐洛博士回甲記念 論文集』(서울 : 형설출판사, 1972), p. 13. 참조.

VII. 結 論

지금까지「Principia ethica」를 중심으로 Moore 윤리학에 있어서 '善'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Moore의 윤리학은 자신의 철학적 기반인 新實在論 위에 分析的 方法을 사용하여 科學的이고 體系的이며 客觀的인 윤리설을 세우려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Moore는 첫째, '善'및 모든 가치어의 實在을 假說하고 있는 과학적인 태도를 취한다. 둘째, Moore 윤리의 최고의 가치인 '善'을 최고봉으로 하는 윤리학의 體系를 확립하려 한다. 셋째, 가치어의 분석에 역점을 두고 도덕 판단의 眞·僞를 가릴 客觀的인 표준을 얻고자 한다.

Moore는 '善'이 實在을 전제하고 '善'을 단순하고 非自然的이며 本質的인 것, 그리고 自明한 것으로 본다. Moore는 이러한 '善'의 속성으로 해서 '善'을 定義할 수는 없지만 '善'이 自明하기 때문에 '善'의 認識은 直覺的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Moore는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여 수단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目的的인 '善'과 手段的인 '善한것'을 구분한다. '善한것'이란 '善'자체가 先天的, 綜合的, 必然的인 관계로 사물에 나타난 것을 말한다.

Moore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自意的 行爲(voluntary action)로 한정 시킴으로 해서 도덕적 행위에 인간의 自由 意志를 전제 한다. 그는 행위의 문제에서 '最大多數의 最大의 善'의 실현을 自明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선다. 그러므로 옳음(right)이란, 自意的 行爲가 '最大의 善'을 결과 했을 때이고, 그름(wrong)이란, 선택한 행위가 선택에서 제외된 행위 보다 적은 '善'을 결과했을 때를 의미한다. Moore는 행위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무(duty)와 당위(ought) 역시 행위의 결과가 '善'을 초래하는 행위로 본다. 그런데 의무와 옳음의 차이점은, 옳음은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한 행위가 '善'을 결과했을 때를 말하는데 반해 의무와 당위는 오로지 의무와 당위라고 명명된 그 행위만이 '善'을 결과하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선택이 불가능한 행위이다. Moore는 행위의 결과는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만 그 공리성이 의존하는 근거는 本來的 價値에 둔다.

Moore는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실천적인 측면에 서서 규칙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칙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分析的인 입장에 있다.

Moore는 價値의 實在를 믿고 價値語의 분석을 통하여 倫理 認識이 가능함과 道德 判斷의 客觀性을 확립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Moore의 입장은 그의 新實在論의 기반위에서만 가능하다. 즉 Moore가 直覺에 의존해야만 했던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없이는 도덕 판단의 객관성도 윤리 인식의 가능성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參 考 文 獻

〈單行本〉

- 김영철. 「倫理學」. 서울 : 학연사, 1983.
- _____ 「道德哲學의 諸問題」.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3.
- 김태길. 「倫理學」. 서울 : 박영사, 1986.
- 박이문. 「現象學과 分析哲學」. 서울 : 일조각, 1985.
- 윤명노. 「現象學과 現代哲學」.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7.
- 황경식. 「社會正義의 철학적 기초」.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5.
- Alston, W·P. and Nakhnikian, G., eds. Readings in Twentieth Century Philosophy. New York : The Free Press, 1966.
- Ayer, A. J.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Randon House, 1982.
- Gross, B. R. Analytic Philosophy : An Historical Introduction. New York : Pegasus, 1970.
- Hare, R. M. The Language of Morals. Oxford Univ. Press, 1951; Reprinted, 1978.
- Hospers, J.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67.
- Moore, G. E. Principia Ethica.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1903; Reprinted, 1980.
- _____ . Ethics. London : Oxford Univ. Press, 1912; Printed in Japan, 1958.
- _____ . Philosophical Paper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59; Reprinted. New York : Humanities Press, Inc., 1977.

- _____ . Philosophical Studies. New York : The Humanities Press, 1951.
- Rosen, B. and Garner, R. T. Moral Philosophy.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7.
- Sellars, W. and Hospers, J., eds. Readings in Ethical Theory. Englewood, N. J. : Prentice-Hall, Inc., 1970.
- Stevenson, C. L. Ethics and Language.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 Press, 1975.
- Taylor, P. W., ed. Problems of Moral Philosophy. Belmont, California :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Inc., 1969.
- Warnock, G. J. English Philosophy Since 1900. London : Oxford Univ. Press, 1958; Reprinted, 1963.
- Corrado, M. 「분석철학 : 그 전통과 쟁점들」. 광강제역. 서울 : 서광사, 1986.
- Frankena, W. K. 「倫理學」. 황경식역. 서울 : 종로서적, 1985.
- McGlynn, J. V. and Toner, J. J. 「현대윤리사상」. 서울 : 서광사, 1986.
- Peursen, C. A. Van. 「現象學과 分析哲學」. 손봉호역. 서울 : 탐출판사, 1983.
- Rice, P. B. 「現代道德哲學」. 김태길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58.
- Raphael, D. D. 「현대도덕철학」. 김영철·김우영역. 서울 : 서광사, 1988.
- Sahakian, W. S.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송휘철·황경식역. 서울 : 박영사, 1986.
- Taylor, P. W. 「윤리학의 기본원리」. 김영진역. 서울 : 서광사, 1985.
- Urmson, T. C. 「분석철학 : 양차 세계 대전 사이의 발전 과정」. 이한구역, 서울 : 종로서적, 1986.
- Warnock, M. 「현대의 윤리학」. 김상배역. 서울 : 서광사, 1986.
- White, M. 「20세기의 철학자들 : 언어와 분석의 시대」. 신일철역. 서울 : 서광사, 1980.

〈論文〉

- 광강제. “分析哲學의 方法”. 「心泉 李康五 先生 華甲記念 論文集」. 서울 : 학문사, 1980.

- 김기순. "善·惡概念의 分析的 考察 : D·Hume과 G·E·Moore의 說을 中心으로".
 순천대학교 철학회. 「思索」. 제3집, 1972.
- 김봉태. "自然主義的 誤謬 問題".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1983.
- 김영기. "자연주의적 오류에 관한 논의". 大韓哲學會. 「哲學研究」. 제41집. 서울 :
 형설출판사, 1985.
- 김중문. "G·E·Moore의 善 概念에 關한 研究". 대구교육대학교논문집. 제6집.
 1970.
- _____. "G·E·Moore의 Can意味分析和 Free Will 問題". 한국철학연구회. 「哲學
 研究」. 제12집, 1971.
- _____. "Moore의 Moral Rules 분석에 대한 一考". 「虛有河岐洛 博士 回甲記念 論
 文集」. 서울 : 형설출판사, 1972.
- _____. "G·E·Moore 本來的 價値概念에 대한 分析".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14집, 1978.
- 김혜숙. "좋은 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79.
- 소홍렬. "分析 哲學의 方法論". 한국칸트학회. 「哲學研究」. 제1집. 서울 : 형설사,
 1964.
- 송석구. "G·E·Moore의 善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69.
- 엄정식. "英國의 實在論과 觀念論의 克服 : G·E·Moore와 B·Russell을 中心으로".
 철학연구회. 「哲學研究」. 제18집. 서울 : 삼일당, 1983.
- 이초식. "科學性이란 무엇인가 : 分析哲學의 立場". 철학연구회. 「哲學研究」. 제17
 집. 서울 : 삼일당, 1982.
- 장현오. "G·E·Moore 倫理學의 分析的 特徵에 關한 小考 : Ethics에 있어서 Right
 와 Wrong의 分析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철학과 연구실. 「哲學會誌」.
 제8집, 1981.
- _____. "道德判斷의 客觀性和 本來的 價値의 概念 分析 : G·E·Moore의 理論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제8집, 1982.
- _____. "G·E·Moore의 哲學의 方向과 Sense Data 論". 「玄谷 文貞復 教授 華甲
 記念 論文集」. 대구 : 이문출판사, 1984.

- _____. "G·E·Moore의 命題 解釋과 知識의 種類". 「翠峯 金福基 博士 華甲 記念 論文集」. 1986.
- 채수한. "G·E·Moore의 倫理思想에 대한 批判的 考察". 세계교수 평화협의회. 「아카데미 논총」. 제5집, 1977.
- Lee Myung-hyen. "Criticism of Moore's Notion of Indefinable Good". 한국철학회. 「철학」. 제10집, 1976.



<ABSTRACT>

A Study on 'Good' in G · E · Moore's Ethics

Kang, Il Wha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Man Sung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wo ethical problems, Moore's notion of indefinable 'good' as well as his theory of action and good.

Moore wishes to present scientific ethics on the foundation of analysis of value terms. This is the basic attitude in dealing with his ethical theory. Accordingly, he uses the analytic approach to the problems of ethical philosophy.

Moore's 'good' is as follows :

- ① 'Good' is a simple notion, just as 'yellow' is a simple notion.
- ② 'Good' is a nonnatural property.
- ③ 'Good' is a self-evident.
- ④ 'Good' can only be apprehended by an action of intuition.
- ⑤ Therefore, 'good' is indefinable quality.

According to Moore, if we defined 'good' by naturalistic terms, then it would be naturalistic fallacy. But this kind of his view is nowadays so often criticized or argued by many philosophers.

Moore proposes that right and wrong depend on the intrinsic value of the consequence of our actions. According to his theory, intrinsic value is a kind of universal characteristic, and theory of action depends on causality. Moore insists that all moral actions must be deduced by utility.

It should be finally noted that the ethics of G. E. Moore has an important place of current trends of analytic ethics, and his analytic method has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contemporary ethics.

